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제262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2
철없는 경철이 엄마 김해숙

기계화 부대 10년만에 '국군의 날' 외출 군은 건군 65주년이자 6·25전쟁 정전 60주년, 한·미 동맹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10년 만에 국군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계화 부대가 분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동반성장 기업' 가면 쓴 포스코

'20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일부 허위 '탄로'…'퇴진 압박' 정준양 회장 또 악재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쪽같이 속이며 동반성장 우수 기업으로 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포스코의 동반성장 우수 기업 지위를 박탈하고 혜택을 취소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입지 역시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해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우수협약기업 혜택 박탈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에 대해 우수협약기업으로서 부여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했다.

포스코의 이번 평가 자료 허위 제출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부자 고발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차례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동반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변호사 및 교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협약평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자료의 일부가 허위임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 등급에 변동은 없으나(총점 100점 중 1.7점에 해당),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포스코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3년 전인 지난 2010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준양 회장을 둘러싸고 2010년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계열사는 크게 늘어났으나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도 꾸준히 자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정 회장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

과연 정 회장이 이 같은 압박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을지,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정 회장의 석연찮은 의혹들이 명쾌하게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재창기자 lsy0413@metroseoul.co.kr

불꽃쇼 보고 패션쇼 보고…10월 여의도는 축제중

여의도의 10월이 축제로 들뜨고 있다. 5일 불꽃축제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세계 5대 패션축제 중 하나인 서울패션위크가 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선한 가을 가족, 연인과 함께 여의도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봄에는 벚꽃 향기로 가득했던 여의도가 올가을 화려한 불꽃으로 뒤덮인다.

5일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축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4개국이 참가,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사이 밤하늘을 뒤덮는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불꽃쇼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당일 오후 5~10시에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양방향 전차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밀라노, 뉴욕, 파리, 런던에 이어 세계 5대 패션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패션위크 역시 패션피플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봄·여름 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4 춘계 서울패션위크'는 18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IFC 서울에서 열린다. IFC 오피스 빌딩 및 IFC몰 바로 앞의 여의도공원에 천막을 치는 이번 패션위크에서는 지춘희, 한상혁, 명유석 등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만나볼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길 만한 행사도 여럿이다. 3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는 제4회 코리아컵 종이비행기대회가 개최된다. 종이비행기를 소재로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곡예비행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박지원기자 pjw@

"할말 없는데…" 입 다문 정·황 기초연금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으로 각각 곤혹을 치른 정홍원(왼쪽) 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1일 국회에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의 '채총장 찍기?'

국회 긴급현안 질문서 민주 신경민·박범계 의원 주장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두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채 전 총장 사퇴 배경을 두고 여야는 부도덕한 공직자의 사퇴와 청와대의 의도적인 '찍어내기'라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채 전 총장과 (혼외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군 어머니) 임모씨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며 "이래서 민주당이 이번 혼외아들 여부에 대해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여러 자리에서 "채 총장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한 정황을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 전 수석이 채 전 총장 관련 자료를 들고 8월 하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9월 5일 서울 강남 한 일식집에서 곽 전 수석과 전 인수위원,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만났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한 핵심 검사에게 전화해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곧 보도되면 채 총장은 1주일 이내 못 버티고 나갈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승석기자

'은행 민영화' 국민적 신뢰 얻길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이 외형상으로는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에는 모두 11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은행 예비 입찰에는 IBK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광주은행 입찰에는 신한금융지주, BS금융, DGB금융, JB금융,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무려 7곳이 뛰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전이 대형 은행과 지방은행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몸값은 각각 1조2000억~1조3000억원,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은행 매각은 우리금융 매각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조차 안팎의 의혹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은행 수익성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그동안 31개 외국계 금융회사는 국내를 떠났거나 영업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더딘 민영화가 금융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영화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우리금융 매각을 모범 사례로 삼아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

서울에 울린 멕시코 스타일 흥타령 천안흥타령춤축제 2013에 참가하는 멕시코 무용단원들이 축제 홍보를 위해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혼모' 이유로 퇴학·전학 못 시킨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오다혜기자

노인복지시설 알고보니 '횡령 천국'

200곳 예산운용 조사 결과

충북 청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을 빼돌려 유흥주점 술값·모텔비·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으로 1억7000만여 원을 사용했다.

강원 강릉의 한 부부는 요양시설 2곳 운영비 2억9000만여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수당 등 용도로 횡령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4주간 전국 노인복지시설 200곳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시설 관계자들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복지시설 대표는 정부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시설 운영 재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빚 탕감에 사용하거나 유흥비, 호화 생활 등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대상의 30%(60곳)는 시설 종사자들의 퇴직 적립금을 대표 명의의 개인 보장성 보험에 편법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승석기자

뉴스 & 뉴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1977년 해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해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처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군본부 참모차장을 거쳐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다. 재산은 본인 소유 5억3100만원을 포함해 8억4500만원을 신고했다.

유신 풍자극 연출 이재오 의원 37년만에 '무죄'

● 유신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8) 의원이 3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무효이고, 현행 헌법에서도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챙기세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둥이 자녀 가족에게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우리카드사와 협력, 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막내 만 13세 이하) 다둥이 530가정에 최대 50만원의 '다둥이 행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포함) 이용 실적이 10만원 이상인 가정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선정된 100가정에 50만원, 전체 대상 추첨에서 선택된 430가정에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실적이 높은 우수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 업체 중 중소기업 10개소에는 엠재단 다둥이 사랑 지원금 2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리카드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다둥이 행복카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1만8743매가 발급됐다. 문의 http://i.seoul.go.kr

/김하나기자

본사 인사

편집국 경제산업부장 김태균

이 싸움 언제 끝날까 1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765kV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송전탑 공사 재개 다시 뜨거운 밀양

한전, 4개월 만에 오늘 재개 ⇒ 주민들과 충돌 우려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2일 재개된다. 지역 주민과 갈등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이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전력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한전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효과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수립한 안전 수칙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200여 명의 밀양 주민이 공사 재개에 반대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전은 부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변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해 경남과 경북지역에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으며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지역의 경우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효성 겨눈 '추징의 칼날'

'MB 사돈그룹' 조석래 회장 등 수천억 탈세 혐의 검찰 본격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회장 등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상무 고모씨 등 핵심 인물 3명과 주식회사 효성 법인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손실을 10여년 동안 매년 조금씩 메우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포착됐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상무 고씨는 조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관리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등 3명은 이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앞서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 주택과 콘도 2채 등을 구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 달러를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조 사장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실시한 대통령 특사에 포함됐다.

한국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선반·밀링 전문과정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황천윤)는 지난 27일 기장군 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반·밀링 전문 기술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남구 무료 힐링토크강좌 7일부터 4개 과정 개강

부산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주민들의 건강 및 일병과 생활의 지혜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남구 힐링 토크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황령산 산야초 이야기와 수제 초콜릿 만들기 등 4개 과정으로 각 과정별 20명씩 모집,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강좌는 ▲황령산 산야초 이야기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11회)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11시30분, 대연3동 대우그린상가 1층에서 열리고 ▲수제 초콜릿 만들기는 7일부터 12월 9일까지(10회)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남구청 5층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다.

또 ▲사상체질과 약선식 토크는 1일부터 12월 6일까지(8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남구청 5층 평생학습센터 ▲ 서예는 7일부터 12월 9일까지(11회)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 남구청 5층 평생학습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문의 (051)607-4514

북극해항로 심포지엄 오늘 해양대에서 열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오는 2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북극해항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신비단길 북극해항로, 우리의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의 북극해항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과 허남식 부산시장, 김무성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한국해양대 박한일 총장 등이 참석한다.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승동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당 균 호
사장·편집인	김 용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위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독 자 센 터	(02)721-9788

2002년 5월 9일 정간신물배포등록 서울배행등록 자00208

'패션의 모든 것' 한자리서 즐긴다

2013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14일부터 사흘간 벡스코서 열려

대한민국 신발·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13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BIFOT 2013)가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련 업체 278곳이 참가해 656부스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는 화승, 트렉스타, 세경, 골핑, 태광산업, 대우인터내셔널, 동성화학 등 우리나라 신발·섬유 패션, 산업용 섬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신제품과 신기술,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프레타포르테 패션쇼와 패션경진대회, 후쿠오카 아시아 컬렉션 등이 함께 펼쳐지고, 산업 부문별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세부적으로 ▲신발업계 대표인사 초청 특강이 진행되는 범한국 신발인 대회 ▲신발 유통 MD 만남의 장 ▲한국 신발 기술 검증의 장인 국제협단 신발기능경진대회 ▲슈즈 업계 최신 제품의 시장 반응 점검을 위한 브랜드홍보제험마켓 ▲신발 생산 자동화 기술 내용과 사례를 내용으로 하는 신발 생산 자동화 세미나 ▲신발 생체역학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와 부산프레타포르테를 통합해 치러지는 부산패션위크(BUSAN FASHION WEEK)는 후쿠오카 아시아 컬렉션 등 다양한 동시 행사를 마련해 참가 업체와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처음 개최돼 독립적인 전시회로의 가능성을 보인 '2013 부산국제산업용섬유소재전시회'는 태광산업, 대우인터내셔널, 동성화학, 휴비스 등 대형 업체들이 참가한다.

벡스코 오성근 대표는 "올해 전시회는 참가 업체의 새로운 판로 개척 등 비즈니스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회 자체의 내실화에도 소홀을 기울였다"면서 "더불어 프레타포르테 동시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지역 신발·섬유·패션산업계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금정시니어클럽 진정한 '꽃보다 할배'

9일 '다문화가정·장애우 초청 가족사랑 페스티벌' 무료로 펼쳐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은 풍성한 가을을 맞아 오는 9일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에 위치한 꿈그린 자연체험장에서 '다문화가정과 장애우 초청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번 체험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체리동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렌의집, 금정노인요양원,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노인 및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노인들은 고구마 수확을 비롯해 한글날을 맞아 시 짓기, 한글 쿠키 만들기,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게 된다. 또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주체성과 사회적응력을 높여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날 점심 식사 등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35인승 및 25인승 차량도 지원된다. 이번 행사는 윤수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보명종합사회복지관, 부산 금정시니어클럽 꿈난매봉양간, 사회복지법인 범어 부산금정시니어클럽 때때도우미 사업에서 후원한다.

시니어 측은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구마 수확 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건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다문화 가정 간의 정보 교류와 친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은 200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6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1·3세대 통합 교육사업인 꿈그린자연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제5회 한·중 대학영화제

동서대는 3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 소향시어터에서 '제5회 한·중 대학영화제'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동서대, 경성대, 중앙대, 중국전매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중 대학영화제는 영화·영상 특성화 대학들이 한·중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문화·교육적 교류의 장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양국 대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28편을 상영한다. 국내에서는 동서대(3편), 경성대(2편), 중앙대(2편), 한국영화아카데미(2편), 부산대(2편), 동의대(2편) 학생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지에서는 북경대, 상해대, 남경예술대, 서안예술대, 홍콩침례대, 대만 대북예술대 등의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소개한다.

'어상' '가오리 리턴즈' 기발하네

영화 포스터 패러디 '부산아쿠아리움 영화제' 눈길

부산아쿠아리움은 오는 3일부터 해양 생물을 주인공으로 한 유명 영화 패러디 포스터를 선보이고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소지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1회 부산아쿠아리움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관상', '설국열차', '슈퍼맨 리턴즈' 등 유명 영화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주인공으로 변신한 패러디 포스터 12점을 아쿠아리움 전관에 전시된다.

예를 들어 '가오리 리턴즈'는 '슈퍼맨 리턴즈'를 패러디한 것으로 가오리 슈퍼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어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상'을 패러디한 것으로 다양한 물고기들의 관상으로 이미지화했다.

또 3~25일 '영화 패러디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화 포스터를 재미있게 패러디해 응모할 경우 29일 당첨자에 한해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아쿠아리움 홈페이지(www.busanaquariu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13일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소지자에 한해 부산아쿠아리움에 입장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51)740-1700

우리수산물 방사능 분석 국민참여 행사 신청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국민들의 방사능 관련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분석 국민 참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3차 방사능 분석 과정은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원 대회의실 및 시험분석실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된다. 문의 (051)602-6001

자갈치시장서 활력 충전하세요

제22회 부산자갈치축제 9~13일 열려…보고 체험하는 36개 프로그램 손짓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축제인 제22회 부산 자갈치축제가 오는 9~13일까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과 남항 앞바다, 광복로, 용두산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상징적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에는 4개 마당으로 나뉘어 36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일 전야제에는 손님맞이 환경 대청소를 시작으로 주 무대에서는 상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원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는 푸짐한 전어뼈무침과 막걸리를 즐길 수 있다.

이어 용두산공원을 출발해 근대역사관, 중앙로, 광복로를 돌아 축제장까지 행진하며 자갈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하는 자갈치의 미래 모습을 재현한 길놀이가 펼쳐진다. 특히 다문화 시대를 맞아 각국의 다문화 가정도 행렬단에 참여한다.

또 10일 오후 7시 축제 개막식에 이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남항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쇼도 볼 만하다. 개막식에서는 현철, 전원주, 한영주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올해 자갈치시장의 만선제는 남포동자역 동장회 회원과 전문 연극인들의 합동으로 연출해 자갈치의 끈끈한 맥을 보여줄 계획이다.

더불어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어 및 문어 이어달리기, 맨손으로 활어 잡기, 생선회 정량 달기, 생선회 젓가락 묘기 등이 마련된다. 특히 맨손으로 활어 잡기에서는 직접 잡은 활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도록 상추, 초고추장 등을 준비한다.

자갈치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갈치 이모저모' 사진전을 비롯해 각종 수산물과 생선회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생선회 상식 전시, 요리 시연 및 각 공전 등도 마련된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2200명분 회비빔밥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점심 시간에 맞춰 자갈치시장 친수 공간과 신동아시장 앞에서 자갈치 아지매 인정 음식인 전복죽, 복국 등의 무료 시식회를 연다.

이와 함께 수산물 난전거리와 자갈치 특산물 판매전에서는 싱싱한 수산물과 질 좋은 건어물을 저렴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며, 회원들이 운영하는 미니 회센터에서는 1만원 단 잠으로 생선회와 소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agalch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공인 2급 자격증 과정 연수

(사)한국놀이문화협회는 오는 17일부터 제6기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인 2급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증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협회는 기존에 별개로 분리돼 있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웃음치료사 연수를 하나로 묶어 웃음건강박수와 마술 등 다채로운 교육 내용으로 진행한다. 또 자격증 취득 후 복지관, 병원, 노인대학, 각종 기업체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번 강의는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와 자미곤 교수 등이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051)441-5511, 7895

동래시장 퓨전파전대회 성료

5000명 참가해 뜨거운 경합

동래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과 동래시장 번영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동래시장 퓨전파전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1시 동래시장 공영주차장 특설 요리대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시장의 특성을 살려 명물 먹거리 개발을 통한 동래시장의 관광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길우 동래구 구청장, 박중욱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및 500여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본 대회는 푸드칼니스트 유자상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부산 전지역에서 모인 86개 팀의 치열한 예선 경쟁 끝에 30개 팀이 선정돼 '우리 가족단의 동래파전 만들기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색적이고 참신한 메뉴를 선보였다.

또 참가자들이 만든 파전은 관람객들의 무료 시식과 함께 노숙인 복지시설로 보내져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눴다.

김원삼 단장은 "올해 부산 부평깡통시장, 남항시장, 진주유등시장, 전북중앙시장 등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동래시장 파전대회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출자 30개 팀은 3일 오후 1시부터 '제1회 동래시장 퓨전파전대회 본선'에 참가해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등 총 13팀에게 2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양학균기자

부산 타임캡슐 '예' '시원' 품다

향토기업 대선주조 제품 수장품으로 선정돼 눈길

부산 대표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주)가 생산하는 '예(鵜)'와 '시원 소주'가 100년 뒤에 개봉될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에 넣을 품목에 선정됐다.

대선주조는 부산시로부터 예와 시원소주 각 1병이 타임캡슐에 담겨져 매설될 수장품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와 시원소주는 오는 4일 개최될 '희망부산 100년 타임캡슐 매설식'에서 지름 1.5m, 높이 2m 크기의 타임캡슐에 들어가 부산시민공원에 묻히게 된다.

부산시는 예와 시원 선정 이유에 대해 서민의 술인 소주가 80년 넘게 부산 시민의 애환을 함께한 역사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주최한 부산 기네스 공모전에서 83년의 역사를 가진 대선주조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기업에 공식 선정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는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타임캡슐에 넣을 부산 발전의 역사와 시민 생활의 발자취를 담은 수장품을 공모했으며 26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 타임캡슐은 100년 뒤인 2113년 10월 4일 개봉돼 우리 후손들이 100년 전 부산의 보습과 선조들의 삶을 문화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 /양학균기자

日 후쿠시마 제2원전 폐쇄 검토

사고 난 제1원전 인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 위치한 제2원전이 폐쇄될 전망이다.

1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제2원전의 폐쇄 계획을 검토 중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30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의 처리 방침에 대해 "후쿠시마 현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전국의 다른 원전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의 에너지 정책, 원자력 규제위원회 기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도쿄전력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도쿄전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제2원전 운영을 결정할 전망이다.

후쿠시마 제2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쓰나미 높이가 제1원전에 비해 4m 가량 낮았고, 전력 일부가 공급된 덕분에 핵연료봉이 녹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제2원전 폐쇄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 시한을 수시간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중 입을 꽉 다문 채 생각에 잠겼있다. /AP 연합뉴스

'셧다운' 케어 못한 오바마

美 '건보 개혁안' 협상 실패로 정부 폐쇄 · 17일 '디폴트 마지노선'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되는 수모를 당했다.

연방공무원 절반인 80만~10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이 3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에 대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끝내 1일 오전 0시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21일간 정부가 문 닫은 후 17년 만이다.

◆공무원 120만명 '임시해고'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의 연방공무원이 '임시 해고' 상태에 빠졌다. 우선 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됐고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정세와 환급 업무도 중단됐다.

외국에서 대시 영시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며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큰 문제는 연방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한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 문제까지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테러 발생 쇼핑몰 귀중품 턴 케냐군

케냐 쇼핑몰 테러 진압에 나섰던 케냐군이 보석·휴대전화·현금 등을 약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로비의 쇼핑몰 테러 사건이 잠정 수습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가게로 돌아온 상인들은 잔여대 제품이나 귀중품들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테러 발생 직후 쇼핑몰 출입이 차단된 데다 테러 진압 후 지난 나흘간 이곳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는 케냐군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뿐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테러 당시 부상자 대피와 시체 수습 등 자원봉사를 한 파레시 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생자인 아침 자말이 구급차로 옮겨질 때 한 병사가 시신의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케냐군은 지난 8월 발생한 나이로비 공항 대형 화재 때에도 이와 유사한 약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국명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감임박
BIG
Speed Day! 매일매일 놀라운 가격
SALE
중국/대만여행
천년의 중국, 백년의 중국!
북경 ★ 만리장성/마사지 4일 27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황산 ★ 힐링여행 4일/5일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상해/항주/주가각 4일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장사/장가계/원가계 4일/5일/6일 5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만(야류,온천,화련) 4일 6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동남아여행
놀라움과 모험이 가득한 세상!
방콕/파타야 4일/5일/6일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보라카이 4일/5일 3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푸껫 휴양지의 여왕 5일/6일 2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세부 낭만의 섬 4일/5일/6일 2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3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4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도쿄/시즈오카(하코네) 3일/4일 3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규슈 온천여행 3일 42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대마도 부산출발 2일/3일 14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599,000부터
▶10월~11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77-1212
1600-6963
www.hanatourist

토요타 "제네시스·K9 나와"

럭셔리카 공략 세단 '아발론' 내놔… 수입차 국산차 전방위 추격

국산차가 전방위로 수입차의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됐다. 토요타가 1일 플래그십 세단 '아발론'을 출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수입차는 소형에서부터 대형 세단까지 프리미엄·대중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국산차와 대등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국산차의 가장 큰 매력인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라인업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번에 나온 아발론은 지난해 11월 미국 시장에 출시된 4세대 모델로 트림중 최고급 사양인 V6 3.5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전량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 도입된다.

플립 저항 저감 18인치 타이어 채택, 차량 경량화 등을 통해 복합 기준 공인 연비는 등급 최고치인 9.8km/ℓ에 달한다. 가격은 4940만원. 제네시스의 경우 4300만~6300만원대다.

다만 시장에서의 판매를 놓고 보면 아발론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대형 세단의 주 고객층이 백안어나 개인 자산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등급 모델과 경쟁하기가 버겁다.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만 해도 ES·LS시리즈가 있다.

가격도 애매하다. 제네시스와 비교하면 트림보다 약간 높지만 주력 트림에 비해서는 싼 편이라 고객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은 주로 준중형 세단이다. 체급이 두 단계나 내려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발론의 등장으로 수입차 라인업이 사실상 완성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껏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징적 의미와 별개로 실속을 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흠집 걱정 덜어주는 액정보호 필름 출시

슈피겐SGP '글라스tR 슬림'

일반 필름보다 3배나 강도가 높아 웬만한 자극에도 흠집 걱정 없는 액정보호필름이 등장했다.

모바일 액세서리 글로벌 명품 브랜드 슈피겐SGP(대표 김대영)는 이 같은 장점을 지닌 갤럭시노트3 액정보호 강화유리 '글라스tR 슬림'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글라스tR 슬림은 열쇠·동전 등 금속성 물체의 자극에도 흠집의 우려가 적을 만큼 강력한 표면 강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학 처리된 슬림한 강화유리 소재로 빛 투과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명함이 기존 보호필름보다 탁월하다. 국내 특허를 취득한 슈피겐SGP의 정밀한 가공 기술로 강화유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곡곡 처리해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우수하다.

자가 접착 기술을 채택해 화면 위치에 맞춰 올려놓고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빠르고 자연스럽게 부착된다. 가격은 3만7500원.

김지영 슈피겐SGP 마케팅 팀장은 "갤럭시노트3의 경우 액정 위에 직접 S펜을 사용하는 일이 잦고 대화면 디스플레이 특성상 화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큰 만큼 강화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필름보다 오랜 기간 화면을 선명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굿바이 세균 '에어워셔 슝' 출시 모델들이 '위닉스 에어워셔 슝'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일 위닉스는 가습기와 공기 청정기를 결합한 에어워셔 신제품 13종을 출시했다. 에어워셔 슝은 일반 가습기 물 입자보다 5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수분을 뿜어내 더 넓은 공간에 세균 걱정 없는 가습 기능을 제공한다. /위닉스 제공

노트북 살길은 초고가·고스펙

한국HP 'Z북14' 곧 선봬

스마트 기기 대중화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초고가·고사양'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HP는 1일 울트라북 워크스테이션 'Z북14'를 이달 중순께 출시한다고 밝혔다. 워크스테이션은 고성능 그래픽 등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고사양 PC를 말한다.

Z북14는 아름이 잦은 외부에서도 고성능 제품을 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기존 워크스테이션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제품 두께는 21㎜, 무게는 1.62㎏으로 가볍다.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의 4세대 하스웰 듀얼코어나 쿼드코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엔비디아와 AMD의 차세대 그래픽 기능을 지원한다.

함께 공개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인 Z북15와 Z북17은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선더볼트 포트와 대형 스크린에서 현관적인 색상을 보여주는 '드림컬러' 디스플레이 패널 옵션을 제공한다.

가격은 Z북14가 270만원이며, Z북15·17은 각각 320만원과 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제품을 자기 작품 제작에 투입했다고 밝힌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의 케이트 스완보그 전략 책임자는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은 프레임 13만개, 디지털 파일 5억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상훈기자 zen@

보험업계 "베트남 시장 잡아라"

성장속도 매년 20%… 앞다퉈 현지 진출

보험업계가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보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성장 속도는 연간 16~20%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더욱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순방한 이후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베트남에 현지 지점을 개설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모색 중이다. 지난번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현지 정부와 보증보험제도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시장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5년 내 10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도 베트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이다.

그중에서도 한화생명은 국내 생보사 가운데 가장 먼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 2009년 4월 국내 생보사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 단독으로 지분 100%를 출자해 해외 보험 영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점포 수는 진출 당시 5곳에서 현재 29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은 150여 명, 설계사 수는 8200여 명에 달한다. 한화생명은 오는 2015년까지 설계사 수를 1만 명까지 늘리는 한편 신규 계약 시장점유율을 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2002년 11월 현지 국영 재보험사인 비나리와 50대 50 합작법인인 삼성비나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29개 손보사 중 6위를 기록 중이다. /김민지기자 ming@metroseoul.co.kr

사람이야? 마네킹이야?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에서 오픈 1주년을 맞아 카무플라주한 모델들이 와인을 권하는 퍼포먼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카무플라주는 '거짓 꾸밈·위장'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로, 보는 이로 하여금 동상 혹은 마네킹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벤트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2세대 '쏘울' 외관 공개

● 기아자는 1일 다음달 출시 예정인 2세대 쏘울의 외관을 공개했다.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을 캐릭터 라인으로 연결해 강인한 이미지를 더했다. 뒷유리는 트렁크 문짝과 양옆의 콤비램프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이고 차봉은 차체와 색깔이 다른 캐노피 스타일을 적용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1세대 쏘울이 디자인 경영의 신호탄이었다면 2세대는 기아차의 대표 아이코닉 브랜드로 성장해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준기자

4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 오너 경영 기업 43곳과 계열사 1500여 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수가 경영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43개 기업 1519개 계열사가 이 규정에 해당되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속한다.

다만 공기업 집단 및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런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中 갑부들 집사 고용 바람분다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영국이나 프랑스 상류층의 대저택에서 흔히 보던 집사들을 앞으로 중국 갑부의 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갑부들이 세련된 매너와 사교 기술을 가진 집사들을 너도나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집사학교는 중국에 분교까지 낸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인 집사 양성 교육기관인 국제집사아카데미(International Butler Academy·IBA)는 내년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 분교를 낼 예정이다.

로버트 워너캐스 IBA 회장은 "중국에서는 매일 백만장자가 탄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집은 최고급 대리석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분교 개설 취지를 밝혔다.

2000년 네덜란드에 설립된 IBA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강도 높은 실습으로 집사 양성 사관학교로 불린다. 이 학교는 기존의 교수진과 함께 중국인 집사들을 채용, 8주 코스를 1년에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집 안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론 테이블 매너, 시가 저장법 등 다양한 서양 에티켓을 배우게 된다.

서양에서 집사는 '지는 직업'이다. 영국에서는 1930년대 3만 명에 달하던 집사가 현재는 1만 명 정도로 줄었다. 하지만 중국 등 동양에서 집사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뜨는 직업이다.

IBA에 따르면 집사의 평균 연봉은 5만~10만 달러(약 5300만~1억원) 수준이며, 별도로 특별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슈퍼 갑부들은 거액의 연봉을 주고 서양인 집사를 직접 모셔 오기도 한다.

한중국제회의통역사 정종수(34)씨는 "고학력 서양인 집사를 고용하는 중국 갑부들이 꽤 있다"면서 "사업상 자주 만나는 외국 기업인을 집에 초대하거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어 "중국 갑부들이 시업상 중요한 협상을 할 경우 서양 집사에게 문화 차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해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며 "서양 집사들은 단순한 집 관리인이라기보다 비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seonmi@ 사진출처=국제집사아카데미(International Butler Academy·IBA) 홈페이지

경력 15년 돼야 신입연봉 2배

경력 15년을 쌓아야 신입 사원 연봉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연봉 통계서비스에 등록된 2012년 연봉 정보 19만2259건을 경력 연차와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1년차 직장인이 2847만원, 15년차가 570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신입 연봉의 두 배가 되는 데 15년이 걸린 셈이다.

market index <1일>

코스피 1995.87 (+1.61)
코스닥 530.55 (-4.54)
금리 2.54 (+0.02)
환율 1073.50 (+0.50)

뉴스 & 뉴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현장 면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포통장 뿌리뽑기 나서

● 금융 당국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0월 중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제3자 주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말한다 /김민지기자

주식형펀드 20거래일 유출

●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0거래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71억원이 이탈해 20거래일째 순유출이 지속했다고 1일 밝혔다. 20거래일 동안 순유출 규모는 3조2065억원에 달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환매성 자금의 유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지기자

건설업 체감경기 다시 악화

● 회복세를 보이던 건설업계 체감경기가 1개월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1.2로 전달보다 2.8포인트 떨어져 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중소 업체보다 하락폭이 컸다.

CBSI가 기준치인 100 이하면 현재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업계는 전월세 대책 발표가 주택경기 회복 조짐에 그친 뿐 전반적인 건설업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윤희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년만에 0%대

체감물가와는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0%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9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999년 9월 0.8%로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기상 여건 호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덕분으로 분석된다.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전달보다 2.2% 내렸다. 신선 채소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떨어졌고 기타 신선식품(-14.5%), 신선 과실(-6.5%), 신선 어개(-0.9%)도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전세 가격은 1년 전보다 3.1%, 월세도 1.6% 각각 올랐다. 우유 가격도 10.3%나 상승했고 택시비(8.8%), 전기·수도·가스 요금(3.4%)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상승률이 0%대로 진입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30대 재벌 재무안정성 나빠졌다

빚 600조 육박… 삼성·현대차 빼면 부채비율 상승

국내 주요 대기업 집단이 빌려 쓴 돈이 금융위기 직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 그룹의 작년 말 부채 총액은 574조9000억원 규모로 2007년 말 313조8000억원보다 83.2%, 261조1000억원 증가했다. 30대 그룹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30대 재벌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부채 비율은 2007년 말 95.3%에서 작년 말 88.7%로 낮아졌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구조가 불건전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체 부채 비율은 낮아졌지만 일부 우량 그룹을 제외하면 재무 안정성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 28개 그룹만 따지면 부채 비율은 113.7%에서 115.4%로 오히려 상승했다.

부채 비율이 5년 전보다 늘어져 재무 안정성이 악화된 그룹이 14곳에 달했다. 부채가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부채 비율 200% 이상 그룹도 동양(1231.7%), 한진(437.3%), 현대(404.1%), 금호아시아나(266.0%), 동부(259.4%), STX(256.9%) 등 6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한국기업평가는 동부, 두산, 한진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평이 내놓은 그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비금융 부문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팜한농, 동부메탈, 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등 주력 6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합산 차입금 규모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비중은 56.1%로 절반이 넘는다.

두산그룹은 주력 계열사의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투자, 한진그룹은 주력인 항공·해운의 저조한 영업실적이 재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활랍스터가 9990원 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활랍스터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9일까지 활랍스터를 9990원(1마리 500g 내외)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54분만에 5000명! 공유형 모기지 완판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청이 폭주해 신청 첫날 1시간 만에 마감됐다.

우리은행은 1일 공유형 모기지 신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기 시작한 지 54분 만에 신청 제한선인 5000명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3분 만에 최종 수혜 대상자 규모인 3000명이 몰렸다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상황실을 꾸렸다"며 "예상보다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79.4%(3970명)였고, 지방 5대 광역시가 20.6%(1030가구)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274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대출 대상자 3000명을 정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최근 1년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로 빌려주고, 매매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까지 1~2% 금리로 빌려주고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다 /김민지기자 mnj@

동양시멘트·네트웍스도 법정관리

그룹해체 가속도 붙어

동양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동양네트웍스'와 그룹 계열사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룹 해체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각각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전날 신청한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로 늘어났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동안 자산을 매입해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며 어려움이 커졌다. 반면 동양시멘트는 동양네트웍스에 비해 비교적 자기 사업을 갖고 있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그룹 위기 타개를 위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사실 양사 모두 금융권 여신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룹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룹 핵심 계열사로 부각되고 있는 동양파워와 동양증권의 향후 행보는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양파워는 그룹 위기설 확산으로 제값에 팔기가 여의치 않아 잠시 매각 추진을 보류했으나 여전히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매각이 재추진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동양증권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 총 617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특별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관련 서류 및 전화 녹취 청취 등을 통해 설명 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 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y@

황감을 바라보는 중견 연기자의 주·조연작이 같은 날 나란히 개봉되기는 배우층이 얇은 국내에서도 비교적 드문 경우다. 김해숙(58)은 2일 공개될 '깡철이'와 '소원'에서 철없는 엄마와 차가운 듯 따뜻한 성폭력 아동상담소장 역을 각각 맡아 정반대의 캐릭터를 자유롭게 오간다. 자식이다 다름없는 두 편의 출연작이 흥행 다툼을 벌이게 된 것과 관련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무슨 운명의 장난이람, 어휴~"라며 엄살을 부렸다.

"철없는 엄마 매력적…단박에 OK"

영화 '깡철이' **김 해 숙**

▶상투성 느끼면 스스로 NG

옛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출연 분량이 많고 비중이 높다 보니 '깡철이'의 흥행 여부에 신경이 더 쓰이는 듯했다.

어쨌든 수 많은 엄마 캐릭터를 연기했으나 '깡철이'의 순이씨는 출연 제의를 단숨에 받아들일 만큼 매력적이었다. "극중 순이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아들 강철(유아인)에 악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죠. 세상에는 많은 엄마가 있지만 모두 다르잖아요? 항상 그랬듯이 의상부터 말투까지 모두 바꿔 출발했지만 쉬운 작업은 역시나 아니었어요."

치매로 조금씩 망가져가는 엄마를 연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상투성이었다. "내가 진짜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변해갈까"란 마음을 품고 현실적으로 극중 인물에 접근했다. 조금이라도 상투성이 느껴질라치면 스스로 NG를 외쳤을 정도다.

육체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았다. 웬만한 빌딩 높이의 굴뚝을 올라가는 장면에선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강철과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에선 교통사고의 두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폐소공포증과 고소공포증이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물론 스키 리프트도 못 타요. 그런데 카메라만 돌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 팔자를 타고나긴 했나봐요. 하하하."

▶극중 아들 키우며 대리만족

지금까지 영화에서 신하균·원빈·김래원 등 여러 톱배 남자 연기자들과 모자(母子)로 만났다. 이 중 유아인은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러나 아주 의젓하고 든든해 마치 큰아들같았다고 했다. 말수는 많지 않지만 힘들 때마다 뒤에서 꼭 안아주는 등 진짜 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굴었다.

카메라만 돌면 고소공포증도 싹~
일 쉬면 병나요…내 안에 소녀감성
국민엄마 좋지만 팜므파탈 더 좋아

실생활에서의 김해숙은 두 딸을 키우는 '딸딸이' 엄마다. 한 번도 아들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지만, 영화를 찍고 나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들 아들 하는구나' 싶다. "극중에서나마 아들을 키우며 대리만족하죠. 게다가 제가 만난 아들들은 다 잘생겼잖아요. (웃음) 그렇다고 딸들한테 불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들과 딸은 느낌이 조금 달라요. 아들은 키울 때 소소한 재미는 없겠지만 듬직할 것 같더라고요."

▶정통 사극 출연하고 싶어

누구는 '늙은 천성기'라고 한다. 박찬욱·최동훈 감독 같은 유명 감독들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서일 것이다.

한참 어린 감독들이 쉬지 않고 찾는 이유를 본인 입으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최 감독은 내가 호기심이 많고 소녀적인 감성이 남아있어 좋다고 하더라"면서도 "실은 인간성이 괜찮아서다. 내 또래 배우들 치고 연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농을 쳤다.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는 많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표징이지만 배우로선 '국민엄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다.

중년의 팜므파탈이면 더욱 좋을 듯 싶다. 얼마 전 최은 패션 월간지 화보에서 일명 '폭탄머리' 파마에 진한 스모키 화장으로 변신했는데, 낯선 자신의 모습이 꽤 그럴듯했다고 털어놨다.

또 요즘은 정통 사극도 다시 눈에 들어오고 있다. TV에선 자주 사극을 경험했지만 스크린에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출연 제의를 고대하고 있다. "전 일을 해야 컨디션이 좋아져요. 쉬고 난 다음날은 몸과 마음이 오히려 찌뿌둥해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주저없이 은퇴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죠. 훗날 후배들이 '저 선배는 끊임없이 연기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해준다면 가장 기분 좋을 듯싶어요."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홀리데이엔터테인먼트 디자인/[illegible]

"송강호·김윤석 소름돋는 연기…난 멀었죠"

김해숙은 '박쥐'와 '도둑들'에서 각각 공연했던 송강호와 김윤석의 연기를 비교해 달라는 우문에 난감한 표정부터 지었다.

그는 "강호씨나 윤석씨는 나보다 후배지만,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기가 막히게 뛰어난 배우들이다. 연기 스타일은 다르지만, 무엇이 됐든지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한다"며 "황정민씨도 그렇고, 보고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다. 나는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현답을 내놓았다.

CJ E&M

Mnet

댄싱9 우승팀 & MVP 결정전

10월 5일 (토) 밤11시

레드윙즈 vs 블루아이, 최후의 승자는?

우승자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가 온다!

댄싱9 갈라쇼

11월 1일 ~ 11월 2일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1차 티켓 오픈 10월 4일 금요일

CJ E&M Ticket
1588-0688

TICKET

2차 티켓 오픈 10월 8일 화요일

인터파크
1544-1555

INTERPARK

두 천재 레이서 뜨거운 명승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film review

/유순호기자 unohme@metroseoul.co.kr

■ 러시: 더 라이벌

제임스 헌트(크리스 헴스워스)와 니키 라우다(다니엘 브륄)는 포뮬러원(F1)의 하부 리그에서부터 치열한 경쟁 관계를 이어온 라이벌이다.

제임스는 여자와 술을 즐기는 플레이보이로 타고난 레이싱 실력을 지닌 천재인 반면 니키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로 레이싱에만 몰두하는 노력파다. 매 경기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1976년 시즌에서 마침내 운명의 한판 승부를 맞이한다.

9일 개봉할 '러시: 더 라이벌'은 레이싱 역사에 전설의 라이벌로 전해 내려오는 제임스 헌트와 니키 라우다의 관계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실존 인물과 당시 상황 등을 완벽하게 복원해 낸 전기물로, 레이싱을 전면에 내세운 스포츠 영화이기도 하다.

아카데미 작품·감독상 수상작인 '뷰티풀 마인드'를 비롯해 '신데렐라 맨' '프로스트 vs 닉슨' 등을 연출하며 실존 인물을 다루는데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론 하워드 감독이 또 한 번 자신의 재능을 과시했다. 전기 영화는 지루하거나 뻔하다는 편견을 깨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들의 실제 삶에 빠져들게 한다.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인물의 특징을 군더더기 없이 부각시키면서 각자의 고민과 성공을 향한 열정을 담백하게 전달한다. 오랜 애증의 관계에서 싹이나는 뜨거운 우정도 충분한 공감을 준다.

단선적인 스토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탁월한 연출과 촬영·편집의 힘이다. 질주하는 레이싱 카와 같이 두 인물이 지나온 6년의 시간이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레이싱 카에 수십 대의 카메라를 부착해 레이서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상을 스크린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드라이버가 느끼는 진동까지 섬세하게 표현되도록 촬영했다.

굉음을 뿜어내는 엔진 소리와 함께 목숨을 건 아찔한 레이스를 경기장에서 느끼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남성 관객에 열광할 승부의 세계와 여성 관객에게 어필할 로맨스까지 골고루 담은 섹시한 스포츠 전기 영화다. 청소년 관람불가.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26화 글·그림 이기

지금 즉시 라드노프, 다로베이, 센스, 바파스를 신속하게 무장 해제시켜 완벽하게 구금한다. 나머지 반란에 가담한 인원은 차후 처리한다.

지금 언급한 인원이 전부 구금될 때까지 보르크헤르트형과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예! 대령님

그런데 정말 바파스가 반란에 가담했나요?

언젠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진실은 크게 다르다고 말한 적 있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나?

예...

아펠은 두 군인을 앞세우고 보급고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고로 통하는 다른 길을 따라 숲을 통과하였다.

저들은...

!!

무바우어!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루저' 주상욱 '실장' 양동근

'응징자' 단골캐릭터 바꿔

주상욱과 양동근이 새 영화 '응징자'에서 각자의 단골 캐릭터를 맞바꾼다.

평소 드라마속 '실장님 전문'으로 익숙한 주상욱은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린 이 영화의 제작보고회에서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극중 대기업 실장인 창식 역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영화에서도 또 실장님을 연기해야 하느냐'며 매니저 형에게 따지기도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런데 루저로 사는 준석 역이란 걸 알고 놀랐다"며 "또 양동근 씨가 창식 역으로 출연한다는 소식에 더 놀랐다. 캐스팅이 이 영화의 반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거친 남자 캐릭터로 낯익은 양동근은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가 촬영 기간이었다"면서 "욕하는 대사가 많아 집에서 주로 연습했는데 (태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마음이 참 안 좋았다"고 털어놨다.

주상욱(왼쪽)과 양동근이 제작보고회에서 대립하는 듯한 극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영화는 학교 폭력의 피해 후유증으로 힘들게 사는 준석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해자 창식이 20년후 다시 만나 쫓고 쫓기는 복수를 벌인다는 내용의 액션 스릴러다.

신동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31일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when@

장혁 김태균감독과 재회 영화 '딸기우유' 캐스팅

장혁(사진)과 김태균 감독이 '화산고' 이후 13년만에 재회한 신작 '딸기우유'(가제)가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체육교사를 짝사랑하는 한 여고생(이도아)의 성장담을 그린다. 장혁은 예고없이 찾아온 사랑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준기 역을 맡아 기존의 거친 이미지를 벗는다.

지난달 14일 충남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이뤄진 첫 촬영은 준기와 비에 젖은 여학생이 대면하는 장면을 담아 이들 사이를 감도는 묘한 감정 기류를 예고했다. /조성준기자

날씨

10/2 水 일출 06:28 일몰 18: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지역	기온	지역	기온
서울	18/23	강릉	17/25
청주	17/24	울릉도	17/25
대전	16/25	대구	17/27
전주	18/25	포항	18/27
광주	18/25	울산	17/27
제주	21/25	부산	20/27

천식에 의한 기침 증상을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감기약을 복용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천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가 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1		7			2	9	4	
			7		8			
					6	7		8
	1						6	
3		8	4					
			9		1			
	2	4	8			3		5
				5			9	

		7		5				9
	2	6					7	
5	8					4		
4		5	8					
	1						6	
					3	7		8
		2					5	1
	7					6	9	
1				6		8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를 리오스 지음)

불황 속 소박한 사치, 명품 커피

유필문의 커피로드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은 면도 없는 것 같다. 고급 위스키와 코냑의 소비 규모나 명품 옷의 소비 또한 만만치 않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고급지와 명품자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음식과 서비스에도 명품이란 단어가 붙곤 한다. 이들 모두 높은 가격으로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명품 커피는 다르지 않을까 한다. 싱글 오리진(single origin)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가격 또한 비싼 커피가 그것들이 아닐까 한다. 게이샤 커피, 90+ 커피, COE 커피에서도 상위 1~2위 커피 등이 그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명품으로 알려진 코나커피, 블루마운틴, 루왁을 포함시켜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무방하리라 본다. 이 모두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들 커피들은 원두 100g에 1만5000원에서 5만원이면 살 수 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12g 정도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약 8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된다. 한 잔에 20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셈이다. 물론 커피를 내리는 수고는 감내한다는 가정하에서다.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맛본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흔쾌하지 않은가 싶다. 이정도 가격이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불황이 되면 명품의 소비는 줄어든다고 한다. 한 해외 언론에 의하면 고급 커피의 소비는 불황에도 줄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고급 커피 소비는 조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십이 줄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써야 하는 명품은 안 되더라도 몇 만원에 즐기는 명품 커피는 불황에도 끄떡없는 명품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손쉽게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명품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열린 명품'이 되는 것이다.

/커피칼럼니스트·한성대학교 겸임교수
(www.gscoffee.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0대 중반에 공무원 공부 잘될까 마른 될 때까지 느긋하게 있기를

스필벅스 여자 81년 3월 8일 음력 저녁 6시

Q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20대 초반부터 공무원을 꿈꿔왔었고 어찌까지도 공무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공부도 시작했었는데요. 그땐 나이도 어렸고 연애 중이라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의료기술직 의료직 공무원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A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변에 머무는 행운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운세가 피실 때 행운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금 귀하에게는 좋은 기운이 겹돌고만 있으니 조급해하거나 쫓기지 말고 40세까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실컷 숙제 못하고 전다면 참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늘 스트레스로 인해 다음 단계로 발전이 안 되듯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늦은 복이 있어 41세 지나면서 '호수에 잠긴 달빛'과 같은 형상으로 인덕이 형성되고 재물도 갖선합니다. 희마동한 [illegible]으로 노력 이외에도 복이 따르니 지금은 현실에 꾸준히 충실하십시오.

안과 질환으로 소극적 삶 답답 현실 인정하고 마음 병 조심을

미달이 88년 2월 4일 음력 오전 10시

Q 대학원을 다니던 중 갑자기 특발성 황반변성이란 안과질환으로 진에 들어박혀 있습니다. 매달 병원을 다니며 눈에 주사약을 넣고 2~3일은 외출도 삼가야 합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고 그저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삶의 원동력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잘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신세가 절로 한탄스럽습니다.

A 오행에서 화(火)는 불이다 빛이라 하는데 사주 구조에서 수화미제라 하여 불이 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안과질환이 생기고 갑히게는 수재,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힘겹게 고생하니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 어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피해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를 막거나 경감케 해야 합니다. 사주학 공부를 취미로 해보세요.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지 말지를 원론적으로 연어내야 합니다. 아님의 병까지 더해질 수 있는데 극복해나가도록 힘쓰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일 (음 8월 28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60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라. 72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84년생 천만 루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이 유리~

소: 49년생 작한 제자의 뱃을 외면 마라. 61년생 변화에 금트면 일는 게 많다. 73년생 걱정했던 일이 잘 풀려서 사기 충전~ 85년생 어설픈 계획은 퇴짜 맞는다.

호랑이: 50년생 큰 목소리는 손해를 만긴다. 62년생 답답할 땐 밖으로 나가라. 74년생 작은 성과가 성공의 날개 달아준다. 86년생 대담으로 멀어질 친구를 붙잡아둬라.

토끼: 51년생 예상은 빗나가니 대비하라. 63년생 달콤한 말 뒤엔 노림수가 있다. 75년생 무뇌한 우군인 사람을 경계할 것. 87년생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은 들는다.

용: 52년생 병원에 가는 일은 귀찮이 하라. 64년생 습관을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76년생 마음을 비우면 의외의 결과 얻을 수도. 88년생 고전하니 곳을 원도 많다.

뱀: 53년생 생각 바꾸면 새 길이 열린다. 65년생 확신에 찬 일이라도 신중할 것. 77년생 어려운 중에 도약할 기회도 생긴다. 89년생 윗사람의 의중 파악하는 데 신경 써라.

말: 42년생 우울할 땐 가볍게 움직여라. 54년생 속마음과 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 66년생 눈앞 이익보단 멀리 보는 안목이 필요~ 78년생 계속 두드리면 철옹성도 열린다.

양: 43년생 권위의식은 화를 자초한다. 55년생 일보할 일이 생기면 화끈하게 먼저 하라. 67년생 칭찬이 쏟아질 때 겸손해야 한다. 79년생 자존전할 기회는 놓치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묵은 쌀 일이 생기니 대비하라. 56년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뜻은 이룬다. 68년생 덤이가 놀라갈 일 생기니 기대하라. 80년생 과감해야 얻는 게 많다.

닭: 45년생 생각이 많으면 전진 못 한다. 57년생 물고 싶다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것. 69년생 멀리서 반가운 빛이 찾아오니. 81년생 소개팅 있으나 출근복 신경 써라.

개: 46년생 식중독으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생각대로 일은 풀려나간다. 70년생 부담스러운 부탁받고 고민의 척루~ 82년생 마음을 비우면 생각도 못 한 행운이 찾아온다.

돼지: 47년생 건강 회복되니 환희유이 생긴다. 59년생 자녀 일에 지나친 간섭은 금물~ 71년생 친구의 일로 바쁜 하루 보내니. 83년생 가난해도 곧은 지성자를 쥐라.

반전의 연속 '주군의 태양' 해피엔딩?

소지섭·공효진 로맨스 행방 안갯속…시청자 관심집중

시청률 20%를 넘으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수목극 '주군의 태양'이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3일 막 내릴 이 드라마는 지난주 방송에서 귀신을 보는 태공실(공효진)이 자신이 과거에 사고로 누워있었던 3년간의 시간을 설명해줄 정체불명의 남자 유진우(이천희)와 떠나기로 결심하고 주중원(소지섭)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모습을 내보내 로맨스의 향방을 놓고 시청자들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유진우의 정체와 태공실과의 관계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유진우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네 영혼은 돌아가지 않았어. 우리는 3년을 같이 있었어"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가장 궁금증을 모으는 부분은 주중원과 태공실이 그동안의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드라마는 주중원이 죽었다가 살아나는가 하면 그의 첫사랑 차희주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고 유진우까지 등장하는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다.

다행히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 관계자는 "유진우가 열고 있는 태공실에 대한 비밀이 16~17회에 걸쳐 방영된다. 반전 스토리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래도 드라마 분위기상 주중원과 태공실의 로맨스는 반전 없이 행복하게 끝나지 않겠느냐"고 살짝 귀띔했다.

스타 작가 홍자매(홍정은·홍미란)가 각본을 맡은 '주군의 태양'은 독특한 스토리와 캐릭터, 연기자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에 로맨스와 공포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첫 회부터 내내 수목극 1위를 유지했다.

진중한 이미지를 벗고 까칠하고 가벼운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소지섭은 '주군앓이'를 일으키며 여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공효진 역시 개성 있는 캐릭터를 공감 가게 연기해 로맨틱 코미디 퀸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주제가인 윤미래(T)의 '터치 러브'는 여시 방영 내내 각종 음원 차트를 장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진태현 "연인 시은씨 매일 보니 좋아"

'내 손을 잡아' 동반출연

공개 커플인 박시은과 진태현이 연인으로 드라마에 동반 출연하는 데 대한 장단점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7일 시작할 MBC 새 아침극 '내 손을 잡아'에서 친모를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연인인 민정현(진태현)에게 배신당하는 한연수 역을 연기할 박시은은 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인 역할을 할 때 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색한 부분이 더 많다"면서도 "그러나 함께 연기하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연수를 배신하는 민정현 역을 맡은 진태현은 "내가 출연을 결정 지은 후 박시은이 캐스팅됐다"면서 "처음엔 함께 출연하는 게 부담됐지만 지금은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박시은을 향해 애정을 드러냈다.

단발머리 티파니 상큼한걸 소녀시대 티파니가 단발머리로 변신했다. 티파니는 한 패션 월간지의 10월호 화보에서 상큼한 단발머리와 스포츠한 의상을 믹스매치한 차림으로 걸리쉬한 매력을 뽐냈다.

▶ 예뻐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 하면 낭패 봅니다 /한상훈기자 [illegible]

1일 열린 MBC 새 아침극 '내 손을 잡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재황·박시은·박고은·진태현(왼쪽부터).

2010년 방송된 SBS '호박꽃 순정'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이번 드라마에서 방영 초반 달콤한 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되며 박시은은 이재황과, 진태현은 박그림과 사랑을 엮어나가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한재석과 박솔미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관심을 모았던 박시은은 이 자리에서 "결혼 계획이 없다.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연기만 하기도 바쁠 것 같다"고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탁진현기자

제왕의 딸 수백향 출발 순조

MBC 새 일일사극 '제왕의 딸 수백향'이 지난달 30일 전국 시청률 7.5%(닐슨코리아 집계)로 출발했다.

이 같은 1회 시청률은 전작 '구암 허준'의 첫 회보다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우·이재룡 등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백제 武寧왕의 딸인 공주 설난의 활약상을 그린다.

한지민 이병헌과 한솥밥

한지민이 새 둥지를 틀었다.

이병헌·한효주·고수·진구 등이 몸담고 있는 매니지먼트사 BH엔터테인먼트는 1일 "한지민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 '플랜맨'을 촬영 중인 한지민은 이번 이적으로 데뷔작 '올인'에서 공연했던 이병헌·진구와 10년 만에 같은 소속사에서 재회하게 됐다.

장근석, 팬 1300명과 '뜨거운 밤'

한류스타 장근석이 1300여 팬들과 뜨거운 밤을 보냈다.

장근석은 지난달 29~30일 강원도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팬미팅 '롯데면세점 장근석 인 스타 애비뉴 2번째 캠프'에 참석했다.

이번 팬미팅은 저녁 만찬과 칵테일 파티, 뮤직토크, 미니콘서트 등 팬들이 장근석과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코너들로 구성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근석은 평소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 이와 관련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팬들과 소통했고, 2집 앨범에 수록된 '네이처 보이', '인디언 섬머' 등 5곡을 부르며 신나는 무대를 꾸몄다.

또 칵테일로 축배를 올리고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무대와 이벤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팬 서비스를 선사했다.

한편 장근석은 다음달 방영될 KBS2 '예쁜 남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남자 독고마테 역을 맡아 1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탁진현기자

star bag

현빈과 저축상 받는다

카라 구하라와 현빈이 저축상을 받는다.

이들과 방송인 김혜영, 연기자 단예신, 야구선수 이대호 등은 29일 열릴 제50회 저축의 날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 주최 측인 금융위원회는 "포상자 모두가 꾸준한 저축으로 귀감이 됐고, 다양한 사회봉사 및 기부 활동으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일본 3개 도시서 팬미팅

연기자 남궁민이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팬미팅을 마련한다.

소속사는 1일 "현지 공식 팬클럽 창단을 기념해 '웰컴 투 드리민 파티(Welcome to DREAMIN PARTY)'란 제목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며 "6일 도쿄 교육회관 히토츠바시홀을 시작으로 8일 오사카 OBP 비즈니스 원판홀과 9일 나고야 문화소극장에서 차례로 열린다"고 전했다.

현아와 듀오 '트러블메이커'

비스트 장현승(왼쪽)이 포미닛 현아와 듀오 트러블메이커로 다시 [illegible]. 현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장현승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로 찍은 사진을 올려 복귀를 예고했다. 이들은 2011년 동명의 타이틀곡을 내세운 미니앨범을 발표해 이듬해 제4회 멜론뮤직어워드 시상식에서 핫트렌드상을 받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생의 한가운데서' 콘서트

록밴드 K2 출신 보컬리스트 김성면이 19일 마포구 서교동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생의 한가운데서 외치다'란 제목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K2 시절 '사랑과 우정 사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그녀의 연인에게'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번 공연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비처럼 음악처럼'의 삽입곡과 신곡 '생의 한가운데서 외치다'를 선사할 예정이다.

신승훈 음악 자아찾기 여정 끝

다양한 장르 담은 신보 23일 발표 ··· 루시드폴도 같은 날 6집 내놔

베테랑 싱어송라이터 신승훈(사진 왼쪽)과 루시드폴(오른쪽)이 23일 동시에 새 앨범을 출시하고 가을 가요계 장악을 노린다.

신승훈은 4년 만의 신보 '그레이트 웨이브'를 발표한다. 2008년 출시한 '라디오 웨이브'와 2009년 '러브 어클락'에 이은 '스리 웨이브즈 오브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 시리즈의 완결판이다.

이번 음반은 신승훈이 6년에 걸쳐 음악적 자아를 찾기 위해 실험해 온 여정을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앞서 발표한 두 앨범의 장점을 극대화한 곡들로 구성됐다. 발라드는 물론 브리티시팝, 펑키 디스코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했다.

신승훈의 자작곡과 함께 현재 가요계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작곡팀들의 곡도 실렸으며 여러 아티스트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간 곡 작업에 매진해온 신승훈은 8월 녹음에 돌입해 지난달 말 모든 곡의 녹음을 완료했다. 현재 믹싱과 마스터링 등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음악적인 면은 물론 재킷과 뮤직비디오 영상 등 시각적인 요소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앨범 출시에 맞춰 다음달 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콘서트 '2013 더 신승훈 쇼 그레이트 웨이브'를 개최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합창단, 신승훈 밴드 등 100여 명이 무대에 오르며 7개월간 준비해온 블록버스터급 공연이다.

루시드폴은 6집 '꽃은 말이 없다'를 내놓는다. 2011년 발표한 5집 '아름다운 날들' 이후 2년 만의 정규앨범으로, 전곡을 어쿠스틱 악기로 녹음하고 시적인 노랫말을 더해 담백한 자연미를 살렸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 다음달 6~17일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공연을 연다. 앨범 특징에 맞게 공연에서도 그 어떤 전자 증폭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어쿠스틱 무대를 선보인다. 루시드폴을 중심으로 네 명의 연주자들이 5인조 앙상블을 이뤄 연주하고 관객들이 무대를 둘러싸고 감상하는 연출을 선보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PHOTO

저킷 사이로 맨몸이 …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가 복귀를 앞두고 1일 티저 사진을 공개했다. 파격 노출에 도발적 표정, 섹시 퍼포먼스를 앞세운 가희는 10일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후 아 유?'를 선보인다.

▶ 남자들이 이렇게 입으면 경찰에 잡혀가니다

/조성준기자 when@

아이유 "국민 여동생 잊어주세요"

'을의 연애' 티저 파격 시스루룩

아이유가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깨는 파격적인 시스루 패션을 선보였다.

그는 1일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록곡 '을의 연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서 모던한 블랙 가죽 팬츠와 헝클어진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속옷이 훤히 비치는 상의로 눈길을 끌었다.

이 노래는 아이유가 가사를 쓴 곡으로 밀고 당기는 연애의 긴장감을 갑을 관계로 표현한 재치 있는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아이유가 집시재즈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곡이며, 매혹적인 목소리에 국내 최정상 집시 기타리스트인 박주원의 화려한 연주가 더해져 조화를 이룬다.

아이유는 7일 출시할 정규 3집 '모던 타임즈'에서 집시재즈·스윙·보사노바·라틴팝·포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유순호기자

아시아 대표가수들 잠실 총집합…9일 페스티벌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이 잠실벌에 모인다.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9일 오후 7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2PM·엑소·걸스데이·제국의 아이들·크레용팝 등 국내 아이돌 가수들과 홍콩의 등자기, 인도네시아의 7아이콘스, 필리핀의 M.Y.M.P 등이 나선다.

진행은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2PM의 택연, 엑소의 크리스가 맡는다.

주최 측은 "국내외 음원 소비량과 SNS 데이터 등을 활용해 출연자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KBS에서 방송된다.

/조성준기자

2013 Seoul Wind Festival 해외초청공연
세종문화회관
뉴시스 공감콘서트 '가을' 러시아 국립 윈드오케스트라 한국 초연
RED ARMY WIND
ORCHESTRA
MUSIC DIRECTOR, SERGEI DURYGIN
지휘 세르게이 듀리긴
2013. 10. 6. SUN. 5 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Glinka Overture to the opera "Ruslan and Lyudmila"
Tchaikovsky Polonaise from the opera "Eugene Onegin"
Strauss Couplets of Adele from the operetta "Die Fledermaus"
Gounod "Juliet's Waltz" from the opera "Romeo and Juliet"
Fantasy on Russian folk themes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단원은 예술가들이었고, 그 중 몇 명은 거장이었다.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A. Khachaturian
티켓 | VIP 10만원 | R 7만원 | S 5만원 | A 3만원 | B 2만원
예매·문의 | 세종 인포샵 02) 399-1114 인터파크 1544-1555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할인정보 | 서울윈드페스티벌 패키지 티켓 50%(R석에 한함), 10월 시민예술제 공연티켓 소지자 30%, 세종문화회관 유료회원 프리미엄 30%,
골드 20%, 청소년(만 7~24세 동반 1인) S A석 30%, B석 50%, 단체 20인 이상 20%, 30인 이상 30%
주최 | 세종문화회관 NEWSis 주관 | 세종문화회관
O C T
A C B
S A X

공항철도 타고 트레킹 출발

코레일 추천 걷기 명소들

가족, 연인과 오붓하게 떠나기 좋은 화창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가 가을을 맞이 공항철도역 주변 트레킹 명소를 추천했다.

◆드림파크 꽃길 트레킹

공항철도 검암역 인근 드림파크 녹색바이오단지에서 6일까지 '제10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열린다.

수도권 최대 국화축제로 불릴 만큼 광활한 규모의 축제장에는 진한 국화 향이 진동하는 국화 군락지를 비롯해 코스모스 광장, 야생초화원, 억새밭, 메밀밭 등 21개 꽃밭 및 테마전시장이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축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장봉도 해안둘레길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에는 최근 개설된 옹암해변~한들해변 해안 둘레길이 트레킹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옹암선착장에서 내려 왼쪽 옹암해변 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10여 분 정도 걸어간 뒤 옹암해변에 도착해 한들해변까지 트레킹하는 4km 정도 거리로 약 2시간 소요된다. 모래사장길(1.94km)과 해안산책로(1.05km), 숲속산책길(0.96km) 등 잘 정비된 둘레길을 따라 갯벌 체험과 솔길 산책,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박지원기자

깔끔한 이진욱, 男다른 면도 배우 이진욱이 하의실종 그루밍족으로 변신했다. 뷰티 브랜드 아베다는 1일 모델 이진욱과 함께 한 셰이빙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이진욱은 얼굴에 흰 미소를 머금은 채 면도를 하고 있다. 이진욱은 "면도로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기 마련"이라며 "저자극 크림 보습 셰이빙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좋다"고 셰이빙 팁을 전했다. /아베다 제공

뉴스 & 뉴스

대상웰라이프 건강식품 중국 홈쇼핑에 진출

● 대상웰라이프는 국내 건강식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웰라이프는 최근 중국의 UGO 홈쇼핑에서 '발효 효소의 비밀'을 55분간 방송했으며 목표 수량인 700세트를 모두 판매했다.

나경호 본부장은 "2015년까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주류 '국가고객만족지수' 소주 부문 1위

● 롯데주류가 2013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소주 부문 1위에 단독으로 선정돼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주류는 세부 조사 항목인 고객의 기대 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고객충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T&G 초저타르 '더 원' 711억개비 판매 돌파

● KT&G는 자사의 초저타르 담배 '더 원'이 출시 10년 만에 누적 판매량 711억13만 개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150바퀴 도는 것과 같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6종이 출시된 더 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총 23종의 초저타르 레귤러 담배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장 멋대로 캐주얼 점잖게

올가을 남성패션 '역발상 코디'로 스타일 살리기

'남자의 계절' 가을이다. 선선한 바람이 불자 셔츠와 아우터 등 환절기 아이템을 찾는 '멋남'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라이프스타일 패션숍 웰메이드가 가을 남성을 위한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번 시즌 남성복 트렌드의 특징은 캐주얼과 정장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장은 뻔하게, 캐주얼은 멋대로 입어왔다면 올가을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장은 과감한 포인트로 트렌디하게, 캐주얼은 은근한 포인트로 점잖게 코디하는 방식이다.

◆글렌체크 슈트·콤비 정장에도 도전

정장 패션은 '클래식함'이 진리다. 하지만 조금만 변화를 주면 보다 감각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올가을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영국 신사를 대표하는 체크 슈트나 재킷 등에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체크 패턴 중에도 글렌체크는 클래식하면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세퍼릿 스타일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콤비 라고도 불리는 세퍼릿 스타일은 상·하의를 한 벌로 입지 않고 믹스매치해 개성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레이, 네이비, 브라운 같은 무난한 색상의 재킷에 눈에 확 들어오는 블루 컬러 넥타이나 행커치프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된다.

◆소재 믹스·아웃포켓으로 멋내기

캐주얼 차림에 자주 입게 되는 카디건, 점퍼, 재킷 시리즈는 화려한 컬러와 패턴보다는 소재에 변화를 준 제품이 한결 멋스럽다. 니트 소매가 달린 점퍼나 두툼한 소재의 사파리, 옷깃에 스웨이드 소재를 덧댄 재킷 등이 대표적이다.

안에 입는 셔츠나 니트의 경우도 복잡한 패턴보다는 스트라이프나 체크무늬 정도가 무난하다. 가을 유행 패턴으로 자리 잡은 체크무늬는 굵기와 색상을 달리해 두세 벌만 가지고 있어도 스타일링이 한결 쉬워진다. /박지원기자 eow@metroseoul.co.kr

아웃도어 재킷 공짜로 입어볼까

이젠벅·오프로드·아이더 온·오프 경품행사 줄이어

'나들이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아웃도어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바람막이·다운재킷 등 경품도 풍성하다.

이젠벅은 다운재킷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면 모두 4명을 뽑아 다운재킷을 무료로 주는 '플래시온 사진 이벤트'를 벌인다.

30일까지 이젠벅이 자체 개발한 일루미네이션 소재 다운재킷의 강력한 빛 반사 기능을 이용해 플래시를 켠 뒤 사진을 촬영해 브랜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ezenbeck.kr)에 올리면 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13일 페이스북에서 발표한다.

오프로드는 30일까지 20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 '플리스 집업'을 증정한다.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 일교차가 심한 가을 날씨에 유용한 플리스 집업은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이너웨어로 활용하기 좋고 일상생활에서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 2013 가을·겨울 신상품 구입 고객 대상이며 이벤트 참여는 1인 1차례로 한정된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고객이 직접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공모전을 연다.

27일까지 아이더 페이스북(www.facebook.com/eiderfriends)에서 광고 화보와 로고·문구 등을 직접 조합해 응모하면 된다. 우수작에는 칸타나 바람막이 재킷(5명), 아이더 트래블 백(10명) 등을 경품으로 준다. /박지원기자

패턴 있는 타이츠 가을 누빈다

스트라이프는 슬림 착시 사선 무늬는 'O다리' 보완

올가을 여성들의 다리를 감싸줄 타이츠는 하나의 트렌드를 집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패턴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즌 타이츠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과 중세 시대의 화려함 등 상반되는 콘셉트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턴은 스트라이프·도트·사선·기하학·꽃무늬 등으로 다양한 반면 색상은 따뜻한 느낌의 갈색·와인·그린 계열이 강세를 이룰 전망이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리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선 두께가 얇고 간격이 좁을수록 다리가 가늘어 보인다.

사선 패턴은 'O'자로 휜 다리의 모양을 잘 감추기 때문에 다리의 단점을 가리는 데 효과적이다. 도트 패턴은 귀여운 느낌의 작은 무늬가 유행인데, 도트 부분에만 튀는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타이츠는 발랄한 느낌을 준다.

김승미 비비안 상품기획팀 과장은 "패턴 타이츠를 선택할 때는 옷이 화려하면 타이츠의 패턴은 단순한 것으로, 반대로 옷이 단순하면 좀 더 화려한 패턴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뚜껑 열면 테이블 세팅 끝! 주방용품 브랜드 월드키친은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베일리 하우스에서 프리미엄 스토리지 브랜드 '코렐 스냅웨어' 론칭을 앞두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렐 스냅웨어는 음식을 보관하는 동시에 테이블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잠금 덮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감기 잡는 '하얀 삼총사'

대파 뿌리·배·더덕 등 식재료 활용한 처방전

감기약 먹으면 7일, 안 먹어도 일주일 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에 나오는 얘기다.

감기약은 주로 콧물을 멈추게 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근육 통증을 덜어주는 진통제, 가래를 삭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진해거담제 등이 있다. 이런 감기약들은 감기를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이런 감기약들은 졸음과 현기증을 유발하거나 소화장애, 중독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에 따라야 한다. 이 밖에 가정에서도 쉽게 약재를 구해 감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가정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는 파뿌리다. 한의학에서 '총백'이라고 불리는 파뿌리는 그중에서도 흰 부분이 약재로 사용된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며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배앓이, 곤란 설사, 고열, 발한, 복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대파의 하얀 부분에서 뿌리까지의 길이가 대략 10cm 정도 되는 것을 2~3개 준비해 300cc 정도의 물에 넣고 약 30분간 약한 불로 끓여준다. 이렇게 한 번 끓인 후 복용하면 파의 아린 맛도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복용은 1회 20~30cc면 적당하다.

배도 약이 된다. 한의학에서 배는 만성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적이며 몸의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는 감기에는 배 반토막(200g)과 무 200g을 즙을 내 복용하면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차가워 많이 섭취하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덕도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효가 가장 뛰어난 더덕은 인삼이나 홍삼만큼 약효가 뛰어나며 사포닌 성분과 이눌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위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생더덕을 꿀에 발라 구워 먹거나 고추장 양념 구이로 먹어도 되고, 생채로 양념해 먹어도 된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세척한 다음 반으로 쪼개 3~5cm 정도로 잘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방섭 서울시 북부병원 한방과장은 "단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과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더페이스샵 '수지 맞는 쇼핑'

3~8일 '해피세일' 행사 진행 볼륨버터 등 최대 50%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3일부터 6일간 전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수지의 해피 세일'을 기획한다고 1일 밝혔다.

3일부터 8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출시한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의 10만 개 판매를 기념해 소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랜드 모델 수지가 광고하는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0만 개를 넘어서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으며, 이번 행사기간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당제품 구매 시 지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망고씨드 하트 볼륨 버터는 촉촉한 윤기 보습과 탱탱한 탄력 효과를 주는 주름 개선 기능성 케어 버터로 최근 여성들이 원하는 볼륨 있는 뺨과 날렵한 턱선으로 이루어진 '하트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 성분인 천연 식물성 망고씨앗 버터는 망고나무의 탁월한 영양 성분을 응축한 버터로 함유돼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또 '하트씨앗'이라 불리는 풍선초씨앗 성분을 함유, 주요 성분인 올레산·리놀렌산 등이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준다.

이 밖에 아이크림 전 품목과 마스크 시트 전 품목,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라인인 '명한 미인도 튼싱고'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illegible]기자

달라진 하프클럽…원하는 상품 한눈에

리뉴얼 기념 혜택 풍성

온라인 쇼핑몰 '하프클럽'이 사이트 전면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리뉴얼은 고객 쇼핑 편의를 고려해 '랭킹 메뉴 기능', '내 정보 수시 확인 기능', '추천 상품 큐레이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카테고리별 기획전 소식과 전체 아이템을 한눈에 보기 쉽게 펼쳐 보여줘 원하는 아이템으로 이동하기 쉬워졌다. 또 메뉴 이동 시에도 항상 위시리스트·장바구니 내 정보 등의 쇼핑 현황을 노출해 제품의 품절 상태 및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품마다 다른 고객들이 구매한 횟수나 상품과 어울리는 추천 코디를 제안해줘 스마트한 쇼핑 역시 가능해졌다.

◆6일까지 이벤트 풍성

하프클럽은 리뉴얼을 기념해 24시간 꺼지지 않는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6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남녀 브랜드 의류를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해주고, 오후 1시부터 3만·4만·5만원 이상 제품에 한해 선착순 총 1300명에게 20·30·50% 슈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온 타임' 이벤트에서는 인기 브랜드 '미니멈', '지오지아', '인디안' 등의 남녀 의류 제품을 9900~3만9900원의 균일가로 판매하고, 매일 오후 6시에 열리는 '1000원 초특가'에서는 아니베에프(Anivee f)의 10만원대 여성 재킷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

올빼미 쇼핑족을 위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게릴라 쿠폰'을 증정하고, 바로 하프클럽에 접속해 구매할 경우 추가 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24시간 다양하게 쏟아지는 구매 혜택을 SNS(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를 통해 널리 소문내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던킨도너츠 기프티콘을 선물로 준다.

/[illegible]기자

이대병원 '간질환 건강강좌'

15일 오후 2시 간센터서

이대목동병원 간센터가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간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와 대한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건강 강좌는 한국의 간질환 치료 및 사회 환경을 점검해 보고 일반인들의 간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성간질환에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를 주제로 한 이번 건강강좌는 문알총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간의 모양과 하는 일(홍근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 ▲간경화는 불치병인가(유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장) ▲간암 극복하기(김태헌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 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 참석자 전원에게 대한간학회가 발간한 '간질환 바로 알기' 소책자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워너시럽 검진권과 복부초음파 촬영권을 제공한다. 문의 02)2650-2503

/[illegible]기자

스타키 '노인의 날' 기념 2000만원 상당 보청기 기증

보청기 브랜드 스타키코리아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증하고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한다.

스타키코리아는 2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한국노년복지연합이 주최하는 '2013 노년 건강걷기대회 및 가족문화축제'에 참가해 20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증하고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인의 청력 손실 유형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된 100% 디지털 보청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회 기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스타키코리아 부스에서 무료 청력 검사를 실시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신의 청력을 진단하고 본인에게 꼭 맞는 청력 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는 "노인분들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465-0999

삼성 최초 리그 3연패 매직넘버 '1'

아빠도 좋아 1일 부산 사직야구장에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 경기에서 롯데 김준태가 10회말 끝내기 안타를 때린 뒤 동료들에게 과격한 축하를 받고 있다. 김준태는 데뷔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했다 /연합뉴스

2·3위 LG·넥센은 패· 롯데 김준태 끝내기 안타

3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을 노리는 삼성이 매직 넘버를 1로 줄였다.

삼성은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 릭 밴덴헐크의 호투에 힘입어 8-2로 승리했다.

74승50패2무를 기록한 1위 삼성은 이날 패한 2위 LG에는 2.5게임, 3위 넥센에 3게임차로 앞서며 정규리그 우승의 매직 넘버 1을 남겨뒀다. 남은 2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거나 2위 LG와 3위 넥센이 1패씩을 당하면 1위가 확정된다.

정규리그 3연패는 국내 프로야구에서 최초의 기록이다.

삼성 배영섭은 5타수 4안타 3득점으로 이날 승리를 이끌었다. 선발 밴덴헐크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 3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리그 1위에 도전하던 LG와 넥센은 롯데와 NC에게 발목이 잡혔다.

5위 롯데는 사직 홈경기에서 연장 10회말 김준태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LG를 4-3으로 물리치고 5연승을 기록했다. 경남고를 졸업한 신인 김준태는 데뷔 첫 경기에서 첫 안타를 끝내기로 장식했다.

롯데 손아섭은 이날 4타수 2안타로 타율 0.344를 기록해 3타수 1안타에 그친 LG 이병규(0.343)를 제치고 타율 1위로 나섰다.

창원 마산 구장에서는 NC가 신인왕 후보 이재학과 나성범의 투타 활약에 힘입어 갈 길 바쁜 넥센을 6-2로 꺾었다.

프로야구 전적 1일

■ 대전

팀	1-3	4-6	7-9	계
삼성	010	042	010	8
한화	020	000	000	2

■ 사직

팀	1-3	4-6	7-9	10	계
LG	010	000	200	0	3
롯데	000	101	010	1	4

■ 마산

팀	1-3	4-6	7-9	계
넥센	020	000	000	2
NC	000	130	20X	6

NC는 51승71패로 KIA와 공동 7위를 기록했다. 선발 이재학은 7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10승 고지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PGA 연장전 상대>

최경주 톰스와 나란히 선다

CJ 골프대회서 재격돌

최경주(43·SK텔레콤·사진 오른쪽)가 2011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연장전 상대였던 데이비드 톰스(46·미국)와 국내 대회에서 다시 맞붙는다.

한국프로골프투어(KGT)는 최경주 CJ인비테이셔널 주최 측은 톰스가 10~13일 경기 여주의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한다고 1일 밝혔다.

PGA 투어 통산 13승을 자랑하는 베테랑 톰스는 2년 전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챔피언십 마지막 날 연장전에서 최경주

와 격돌해 아깝게 무릎을 꿇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올 시즌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류현우(32)를 비롯해 이동환(26), 김시우(18) 등이 출전한다. /조성운기자

아직생 루카쿠 "원맨쇼 봤지?" 에버튼의 로멜루 루카쿠(가운데)가 1일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13~2014 시즌 6라운드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 사이를 뚫고 슛을 날리고 있다. 에버튼은 2골 1도움을 기록한 로멜루의 맹활약에 힘입어 뉴캐슬을 3-2로 눌렀다. 루카쿠는 올 시즌 첼시에서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했다. /AP·뉴시스

기보배 터키 세계선수권 '금빛 스타트'

예선 1376점 1위 차지

지난해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전 챔피언 기보배(광주광역시청·사진)가 2013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분 좋게 출발했다.

기보배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파필론 경기장에서 열린 대진 라운드에서 4개 거리 144발 합계 1376점을 쏘아 대만의 탄야팅(1371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팀 동료 장혜진(LH)과 윤옥희(예천군청)는 1369점과 1361점으로 각각 3, 5위에 자리해 한국 궁사 모두가 1~2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36강에 직행했다.

단체전 대진 라운드에서도 세 선수 합산 4106점으로 1위에 올랐다.

"다저스 커쇼·그레인키 원투펀치 포스트시즌 최강"

류현진(26)이 제3선발로 점쳐지고 있는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사진 왼쪽)와 잭 그레인키(오른쪽)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활약할 '원투 펀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 CBS 스포츠는 1일 포스트 시즌 1·2선발의 순위를 매기는 기사에서 "커쇼와 그레인키가 원투 펀치로 최강이란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방어율과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WAR는 해당 선수가 리그 보통 수준의 선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객관화한 지표다.

커쇼는 방어율 1.83에 WAR 8.0을, 그레인키는 2.63에 4.0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추신수(31)의 신시내티 레즈 마운드를 책임지는 맷 레이토스와 조니 쿠에토는 6위에 올랐다. 레이토스는 3.16과 3.8을, 쿠에토는 2.82와 1.4를 각각 기록했다.

막강한 원투 펀치와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류현진의 능력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웹진 블리처리포트는 이날 다저스 선수 각각에 대해 평점을 매기면서 류현진에게 'A'를 줬다. 류현진보다 높은 점수(A+)를 받은 선수는 커쇼, 그레인키, 야시엘 푸이그, 후안 우리베 등 4명이다.

블리처리포트는 "류현진이 고작 330만 달러에 14승을 올리면서 다저스는 엄청난 쇼핑을 했음을 증명했다"며 "류현진은 시즌 내내 꾸준했고, 동료와의 사이도 좋았다"고 적응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성운기자